

■ 인사말

통일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걷습니다.

2017년은 1952년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최고도로 오른 한 해였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남한과 북한, 미국과 북한,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고, 이 긴장상태는 평창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아무리 인간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조종하려 하여도,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우리 연세의료원의 사명이기에, 통일보건의료센터도 하나님 사역의 도구가 되어 통일 사역에 동참하기 바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설된 통일보건의료센터는 이제 활동 3년을 지나 4년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2017년은 의, 치, 간, 약대 학부 학생들과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의 강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2018년에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다양한 직접적인 교류와 협력사업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통일보건의료센터의 연구, 교육 및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셨던 모든 의료원 가족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 한반도에서 새롭게 전개될 통일의 과정에 연세의료원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통일보건의료센터와 함께 기도하며 행동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전우택 올림

제28차 통일보건의료세미나 – Christopher Davis 옥스퍼드대 교수



- 일시 : 2017년 10월 17일 (화) 18시
- 주제: Morbidity Icebergs in the USSR and Russian Federation: Lessons for South and North Korea
- 장소 : 연세대학교 의료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
- 발제 : Christopher Davis 옥스퍼드대학교 교수
- 내용 : 통일부 통일교육원 해외전문가 초빙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세미나로 60여 명의 학생 및 교수진, 일반직원이 참석함

세미나 스케치

데이비스 교수는 40년 이상 소련 연방·러시아와 동유럽의 경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2013년부터 러시아 국립 국가경제·공공행정 아카데미 보건개혁경제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인 이 분야 전문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질병 빙하” 개념을 소개하며 구소련연방과 러시아의 질병빙하에 대한 경험적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이에 대응한 러시아의 보건부문 개혁 전략을 공유했다. 나아가 경제 체제 변화의 유형에 따라 북한과 남한의 통일 과정에서의 비용과 보건의료 분야의 양상을 유추해 보았다. 특히 중국의 개혁과 독일의 통일, 러시아 변혁기 모델로 나누어 남한과 북한의 통일 과정의 경제 및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 양상을 시나리오별로 논의하여 흥미를 더했다.



의대, 치대, 간호대, 약학대학 학생 뿐 아니라 보건대학원의 글로벌 보건안보역량강화 석사 학위 과정의 외국인 학생들 2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었으며,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러시아 및 구소련의 질병빙하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질의에서부터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대한 크리스토퍼 데이비스 교수의 견해를 묻는 질문 등 다양한 질문과 이에 따른 응답이 오갔다

제29차 통일보건의료세미나 – 이홍식 연세대학교 정신의학과 명예교수



- 일시 : 2017년 12월 19일 (화) 18시
- 주제 :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 하나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 장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대회의실
- 발제 : 이홍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 내용 : 하나원에 대해 소개하고 하나원에서 의무 사무관을 역임하며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탈북민들이 받는 특수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특성, 진료 경험을 공유함



“북한생활 그리고 탈북 과정을 경험하며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정신적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17년 마지막 통일보건의료 세미나에는 약 3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홍식 정신건강의학과 명예교수는 중국 및 하나원 등에서 직접 탈북이주민을 대면하고 상담하며 보고 들은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그들의 심리와 정서, 정신건강에 대해 전했다.

그는 탈북이주민들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끼치는 stressor를 북한 내, 탈북 과정 중, 남한 입국 후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우울감 및 좌절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혼란감, 피해의식 등으로 소개했다.

본 세미나는 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이 가진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물리적 결합 뿐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의 정서적 유대와 이해가 선행되는 ‘진정한 통일’을 위한 시간을 제공했다. 강연 종료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탈북주민의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향성, 북한 주민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시각과 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2017 세브란스 통일의 밤 – 2017.11.27(월) 17:20

- 일시 : 2017년 12월 19일 (화) 17시 20분 ~ 20시 30분
- 장소 : 연세대학교의료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
- 취지 : 전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통일과 북한에 대한 흥미를 제고 및 통일보건의료센터 활용 공유
- 참석 : 교직원 및 학생, 기타 관심 있는 외부인 약 180여 명



올해로 3회를 맞는 <세브란스 통일의 밤> 이 에비슨의생명센터 유일한 홀에서 열렸다. 전 교직원과 의대, 치대, 간호대, 약대 및 보건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약 18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었다.

박용범 의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본 행사는 윤도흠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김승민 제중원보건개발원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개회사를 맡은 전우택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은 '1885년 의료인 양성과 환자 진료가 시급했던 시기부터 1980년대, 1990년대 국제적 수준의 보건의료 수준을 개척하는 시기에 시대적 사명에 따라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세브란스의 역사를 이어 21세기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사명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의 문제에 있어 세브란스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통일보건의료센터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소개했고 박경서 회장의 기조강연의 시작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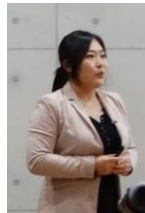




1부 행사는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기조강연을 통해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을 되새겼다. 이어서 질의 응답 코너를 통해 박경서 회장과 전우택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이 참석자들에게 자유로이 북한과 통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는 주제로 보건대학원 외국인 학생들을 비롯하여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학생들이 지난 1년 간 통일과 관련된 각 단과대학 별 활동을 소개했다. 보건대학원 외국인 학생 발표 시간에는 가나 보건부 소속 Asare Asamoah 씨와 DR콩고 공중보건부 질병감독관 Tshiminyi Paul 씨가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대해 외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생각에 대해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어서 추상희 간호대학교수 및 통일보건의료센터 운영위원의 센터 소개 코너가 있었다. 이를 통해 센터 설립의 취지와 그 간의 활동을 공유하며 앞으로 세브란스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조직으로서 역할하여 통일보건의료 분야에서 세브란스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며 관심 있는 분들의 지속적인 활동 참여를 부탁했다.

끝으로 모두가 기다린 경품 추첨 코너에서는 다채로운 경품을 추첨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나눠 주었다. 해당 경품들은 세 번째 세브란스 통일의 밤을 축하하고 센터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의료원장실 및 각 단과대학, 제중원보건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준비되었다. 경품 내역으로는 커피 상품권 부터 블루투스 스피커, 테블릿 PC 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열기를 돋우었다.



기조강연 스케치

한반도 인도주의 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제 3회 세브란스 통일의 밤>에는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이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며 통일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1980년대부터 29차례 방북,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등 인권, 북한, 통일과 관련하여 많은 활동을 펼쳐 온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인도주의적 공동체로서의 한반도 건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기 전, 사고의 틀을 먼저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볼 때 다차원적, 다분야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며 특히 통일된 대한민국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의 평화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또한 통일을 생각할 때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북한의 인권문제를 고려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생각해야 함을 제안했다. 또 절대선과 절대 악이 없음을 인지하고 차선의 문제, 차악의 문제를 고려해야 화해와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72년 간의 '분단'의 현실이 한반도의 다양한 문제의 근원이었고 전쟁과 갈등을 일으키며 국민적 피로를 일으키는 원인이었다고 지적하며 이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뒤이어 대한적십자사의 설립과 정신에 대해 공유하며 세계적십자의 7대 원칙 중 “인도주의”가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강조했다. 한 편 UN 설립 당시 회원국 정부의 3가지 임무를 소개하며 평화와 안전, 발전과 개발, 인권/인간의 존엄성 세 가지 가치는 함께 발전해야 함을 제시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 세 가지 가치를 인지하며 포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십자는 하나의 가치인 “인도주의”로 뭉친 하나되기 위한 세계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적십자사의 운동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무결한 평화선언을 하여 남북 대치를 뛰어넘어 참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 것임을 전했다. 이를 통해 72년의 분단에서 온 부조리의 원인을 극복하는 프로그램을 작성, 실천할 것이며 비자를 받고 남북을 왕래할 수 있는 “인도주의 공동체”로서의 한반도 건설에 힘쓸 것임을 전했다.

강연을 마무리 지으며 분단의 역사 속에 국토 뿐 아니라 국민 역시 둘로 나누어 진 현실 속에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전쟁은 결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남한과 북한이라는 특수성과 세계차원의 보편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해결법을 찾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

통일의 밤 참석 후기

#1 <통일의 밤 참석 소감> 정상임 간호대학 학생

첫 시작은 북한 다큐멘터리를 통한 북한 사람들의 실상을 알아보는 내용이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북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들과 다른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잘 녹아있었다. 나는 북한 사람들의 삶이 힘들고 폐쇄적이며 여유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들도 무리를 지어 다니고 서로 웃으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특히 미국이 최대의 적국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로 꼽으며 미지의 나라에 대해 호기심을 표하는 모습을 보며 나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기조강연을 통해서 한반도의 인도주의 공동체 건설을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대한적십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통일에 대해 대해 적십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보안상으로 인해 조금 부족해서 아쉬웠지만 인도주의적 공동체 건설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계기였다.

학생기획단에서 준비한 내용 중 간호학기획단은 통일과 관련하여 의료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실제 그들의 삶을 생각해보고 체험학습도 해보는 것들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가장 실제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했다. 의학기획단에서는 통일관련 과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해주었고 약학기획단은 DMZ에 대한 설명과 DMZ를 갔을 때 어떠한 느낌을 느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어 DMZ에 다녀온 느낌이 들 정도였다. 치의학기획단은 북한과 한국의 치과대학의 공통점이나 차이점등을 위주로 설명하였는데 내가 생각했던 북한의 너무나 열악한 환경과 달리 나름대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고 북한사람들도 열심히 공부에 임했음을 알게 되었다.

통일의 밤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보다도 나를 다시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무심코 북한사람들을 단순히 '가난하고 폐쇄적인 곳에 사는 힘든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가졌었는데 북한사람들도 나와 같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했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함께 나아갈 과제의 첫 발걸음이라 생각했다. 각 과의 학생들이 통일에 배우고 느꼈던 것처럼 언제 될지 모르는 통일을 대비해 그들의 실상을 알고 의료적 측면에서의 과제를 차근차근 생각해보는 것도 하나의 준비단계라고 느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의 상호작용을 통해 통일을 대비해 함께 대비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통일의 밤 참석 후기

#2 <통일의 밤 참석 소감> 양수정 간호대학 학생

간호학과의 '통일과 간호'란 수업을 듣기 전에 나에게 통일이란 항상 아직 갈 길이 먼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통일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북한에 대해 알면 알수록 통일이 그다지 멀지 않은 숙제이며 우리가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통일과 관련된 여러 인사들에게 강연을 들으며 나는 통일에 대한 나만의 신념을 고취시켜 나갔다. 끝으로 세브란스 통일의 밤을 보내며 다시 한번 한 학기 동안 내가 배워온 통일에 대한 나의 가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기조강연을 통해, 다시 한번 평화로운 통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고 꼭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 하게 되었다. 6.25로 말미암아 시작된 분단을 끝내기 위한 방법으로 또 다른 전쟁을 치르는 것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박경서 회장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땅 위에서 한 피를 나눈 형제였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한반도는 분단의 철책이 들어섰지만, 지나간 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분단의 선을 지우는 일 만큼은 '우리의' 의지대로 평화로운 화해와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 또한 나의 위치에서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지 만 72년이 되어가고 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이 시간 동안 남한과 북한은 다른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차근차근 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일 사소한 '다름'부터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보일 것이다.

평화로운 통일은 언뜻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나 또한 교과목을 듣기 전에, 통일의 밤을 참석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의 일이지만 항상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간과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젠 물러설 데가 없다고 생각한다.

통일은 바로 우리 코 앞까지 닥쳤고 만약 우리의 준비가 미흡하다면 우리는 또 다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혹은 남북이 화합하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

통일의 밤 참석 후기

#3 <통일의 밤 참석 소감> 임소연 간호대학 학생

After participating in the 'Korea Unification Day' event, I was filled with joy, hope, and countless of questions regarding what it really means to be a united country. The majority of people claim that they want to be unified, but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government system, belief, and lifestyle. So how will it be possible to unify such different countries? This event specifically discussed this question, and proposed available solutions that will brighten our future as a united country.

This day, the nursing, dentistry, and the medical faculty presented how each of them studied and worked to understand North Korea and try to bring peace to this 70 year division. As a nursing student myself, I was amazed how my peers and professor do to understand North Korea and its health system. The presentation was given by my fellow peer Ga Young Kim. She enrolled in a class called 'Nursing and Unification' taught by the acclaimed Professor Chu. In this class, the students discussed the differences in healthcar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y also wrote papers in how to improve the healthcare system in North Korea. The students even visited the Demilitarized Zone, the border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class is purely to increase awareness for a possible unification and what that means for both countries. The presentation made me want to take the class, and probably will in the future.

Many presentation were given, and some of the presentations were not even given by Koreans. It was interesting to witness that foreigners have taken interest in our situation and how they proposed that the unification was possible, and how as Korean citizens, we should take interested as well. As a Korean citizen who grew up outside of Korea, I had always known about the division, but never thought it would actually be possible to unite these countries. There were times that I thought maybe it is even better if we are divided. However, after watching how North Koreans suffer under such irrational dictatorship, I realized that a unification was necessary, and as a future nurse, the health of these citizens should be a priority.

Overall, the 'Korea Unification Day' event was eye opening. I was awed that the busy acclaimed faculty members of the nursing, dentistry and medical department would make time to work to spread awareness and solutions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I hope to be a part of this event next year, and hope it will have a great impact in our soon to be unified country ■

주요 활동 알림

○ 의과대학 특성화 과정 진행

일정	2018. 2. 1(목) ~ 2.28(수)
대상	의과대학 학생 2명
목적	북한 사회, 보건의료 실태, 탈북민에 대한 이해 등을 바탕으로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예비의료인으로서 주체적인 태도 함양
내용	통일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의 강의 수강 및 의견 교환, 연구 참여 등

통일보건의료학회 관련 소식

○MOU 체결

날짜	2017.12.21
대상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내용	당뇨병 및 내분비계 질환에 대한 북한 실태 연구 및 개선방향 연구 등에 협력을 위한 MOU 체결

○통일보건의료준비(가칭) 서적 발간 추진

개요	통일보건의료학회는 각 대학의 전문 식견과 지식을 겸비한 교수진 및 연구원들과 함께 통일보건의료의 준비 및 제안을 위한 옴니버스 형식의 학술 서적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	---

○연구동향

제목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통합지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연구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김석향 이화여대 교수 공동연구원 - 강민아 이화여대 교수, 김신곤 고려대 교수, 배그린 이화여대 교수
내용	- 북한의료체계 관련 기존 연구 검토 - 북한의료체계 관련 문헌 수집 - 자료수집 현황 점검 회의 - 북한보건의료체계 통합지표 요인 추출

